

광주시, 설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광주시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1~5주(2025년 12월28일부터 2026년 1월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보다 3배 이상 웃도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주차 32.6명 ▲2주차 33.8명 ▲3주차 30.7명 ▲4주차 27.6명 ▲5주차 28.4명으로, 이번 겨울철 유행 기준인 9.1명보다 높았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106.7명으로 어린이가 월등

광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기준보다 3배 웃돌아

앙래 잦은 연휴 집단발생 우려... 설연휴 전 예방접종 권장

히 높았고, 이어 ▲1~6세 47.8명 ▲13~18세 45명, 19~49세 41.9명 순으로 유아·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 결과, 같은 기간 광주지역 발생 환자가 79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높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설 명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조리하거나 나눠먹고, 조리 후 장시간 보관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광주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르신·임신부·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아울러 발열, 설사, 구토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명절 연휴기간 중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고 집단 발생하면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설 연휴는 국내외 여행과 가족·친지 방문 등 교류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진다"며 "설 연휴 전 미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일상에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광훈 기자

남구,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대상

기부문화 확산·지역사회 변화 등 공익 기여

광주 남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후원한 대회이다.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지표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 시스템'에 수집된 모금액과 모금 건수 등 통계 자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 답례품 및 기금사업 관련 자료 등을 반영했다.

남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

반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전국 최고 수준의 모금 실적을 올리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둬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자의 공감과 지역사회 변화를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아 공익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과 아동,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장애인들 구성된 장천하 예술단 및 유니행 수영클럽 지원과 지역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뉴욕 공연, 재난 대응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 등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린 대표 사례로 손꼽았다.

또 답례품 공급업체 다변화와 지역경제



연계 전략,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기부 참여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기부 참여의 저변을 확대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남구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미를 살리면서 표준 모델까지 제시한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우리 구청의 고향사랑기부 사업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큰 사랑을 보내준 기부자가 이뤄낸 결과이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5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서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과 지원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과금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2022년부터 교육부가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성과 지원 분야는 공모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구, 5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으로 성과금 4500만원 확보

AI·디지털 분야 등 26개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앞서 서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관내 16개 주간보호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서구는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AI·디지털

분야 프로그램(키오스크 등) 6개 ▲환경·문화예술·시민참여 등 지역 특성과 분야 프로그램(비건 프로젝트, 그린 리더 아카데미 등) 20개 강좌 등 총 26개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 활용 시나리오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직접 제작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자료 프로젝트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 환원 활동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 모두가 배움에서 차별받지 않는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으로 농업 미래 성장동력 가동

관계기관 연구개발-사업화 연계·규제 개선 등 전략 논의

전라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지난 10일 도청에서 열어 전남 농업의 구조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는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과 전남농업기술원, 순천시·나주시·장흥군,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연구원, 그린바이오 우수기업 등 그린바이오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전남도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방향, 시군별 추진 방향, 기업과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제도·규제 개선 과제 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 육성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접목해 농업의 전·후방 산업 전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우수 그린바이오 제품으로 숙련 개선에 효과가 있는 흑하랑 상추 제품(나비평영농조합법인·

천지명차),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작두콩 제품(데이앤바이오), 반려동물 피부 개선용 개비자나무 원료 제품(에프오엔), 숙취 해소에 활용되는 나주배 제품(좋은영농조합법인) 등이 소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나주는 식품소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곡성은 미생물을 3대 축으로 삼아 합평·영암 등 협력지역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은 표준화된 스마트팜과 계약재배 확대로 소득을 높이고, 기업은 안정적 원료 공급망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선호 기자

합평군 공고 제2026-99호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합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도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기점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 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일반 도로	제190-15.8(190.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3-902	일반 도로	제190-15.8(190.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진행변경 - 기점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원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도서 : 계획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